

22. 오가온천교류회관 고후, 나마하게 태고

나마하게 태고는 오가반도에 전해지는 특유의 무대예술로 일본 태고 연주와 나마하계의 독특한 움직임 및 외모를 조합한 것입니다. 나마하게 전통의 일부는 아니지만 이 공연은 현지에서도 매우 인기가 있어 30 년 이상 공연을 거듭했습니다. 커다란 일본 태고를 세차게 두드리는 무시무시한 나마하계의 모습은 보는 이의 눈길을 사로잡으므로, 오가를 방문하는 모든 분들이 꼭 보셨으면 하는 공연입니다. 현재 오가에서는 약 여섯 그룹이 정기적으로 나마하게 태고를 선보이고 있으며, 현지 고등학교에는 나마하게 태고 클럽이 있을 정도로 인기를 떨치고 있습니다.

탈을 쓴 신들의 사자와 전통적인 일본 태고 연주를 처음 조합하게 된 것은 1970 년대 후반의 일이었습니다. 이 참신한 아이디어는 오가 온천 지역의 호텔과 료칸의 투숙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새로운 볼거리로 고안된 것입니다. 그러나 일본 태고 연주를 시작한 당초에는 나마하게 의상과 탈을 입은 채 북을 치는 것이 예상보다 어려워 공연이 궤도에 오르기 시작한 것은 최초의 나마하게 태고단이 결성된 1980 년대 후반이 되고 나서의 일이었습니다. 공연은 오랫동안 호텔과 료칸을 중심으로 실시되었지만 머지않아 일반 관객을 위한 정기 공연을 개최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.

오가 온천 지역의 공연 무대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‘오가온천교류회관 고후’는 2007 년에 지어졌습니다. 그리고 같은 해, 원시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30~40 분의 연주를 중심으로 한 현재의 나마하게 태고의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. 공연 중에는 나마하계가 관중들 사이를 돌아다니기 때문에 관중은 나마하계와 함께 사진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. 현지의 나마하게 태고 그룹 중 하나인 온가의 공연을 4 월 중순부터 11 월 하순까지 이곳 ‘오가온천교류회관 고후’에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.